

환경계소식

국가공단에 환경지표수 심는다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국가공단지역내 대기배출업체를 대상으로 강낭콩, 글라디올러스 등 환경지표수 식재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울산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기오염지표인 아황산가스, 오존, 스틸렌, 광화학스모그 등에 약한 나무를 공장 안팎에 환경지표수로 심어 생육에 따른 오염정도를 확인키로 하고 국가공단내 대기배출업체 367개사에 해당 나무를 심기로 했다.

시는 아황산가스의 경우 자주 개나리, 오존에는 담배잎, 불소에는 글라디올러스, 광화학스모그에는 강낭콩이 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오염지표별 환경수선정작업을 추가로 실시한 뒤 올 3월까지만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올 4월 5일 식목일을 계기로 환경지표수를 일제히 심기로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울산시 설원홍 환경관리과장은 '우리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연탄을 많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카나리아가 일산화탄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실에 착안해 대기배출물질 원인별 약한 식물대조군을 연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환경지도' CD 제작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구역 등 생태계 보전지역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국토환경지도'가 최초로 제작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9개월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협력해 상수원보호구역 등 9개 제한지역을 하나의 지도에 담은 국토환경지도를 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축적 2만5천 분의 1로 제작된 이 지도에는 △생태자연도 등급 △생태계 보전지역 △조수보호구 △습지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공원구역 △특정도서 △대기·수질 특별대책지역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관련 규제지역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사업계획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나 인허가 문제로 사업자와 행정기관간에 불거지던 갈등이 다소 줄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환경사업단 신설

부산시는 낙동강 둔치 개발을 전담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신설한다고 지난해 12월 16일 밝혔다.

행자부 승인을 받아 신설되는 사업단은 낙동강 둔치 4개 지구 3백31만평과 서낙동강 하천을 생태공원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맡게 된다. 이 조직은 2005년까지 시장 직속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시는 또 부산시건설본부 내 교량건설부를 상시조직으로 전환, 온천천 고가도로 사업 등을 맡도록 했다.

2003년 개관 예정인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제2전시관의 경우 사업소(정원 13명)가 구성돼 운영을 맡게 된다.

이같은 조직 설치로 부산시의 인력 76명이 증원돼 아시안게임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 흡수 등 과원 인력 처리에 숨통을 트게 됐다.

기술표준원, 우수재활용제품의 품질기준 대폭 강화

앞으로 재활용제품의 품질기준이 일반제품의 KS규격 기준까지 대폭 상향조정된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지난 12월 2일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마크(GR마크)제도를 인증제품의 환경친화성과 품질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운영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인증제품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질인증규격을 개정·확인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규격의 적합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품질기준도 신재를 사용한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의 품질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전면 보강을 통해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환경계소식

이 개선되고 GR마크가 국가기관이 부여하는 권위있는 인증마크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한 신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현재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134개 업체, 173개 품목)의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포스코 사내벤처 CTA, 무료 환경컨설팅

지난해 10월 포스코 사내벤처 3호로 출범한 CTA(Cleaner Technology Application) 벤처팀은 출범기념으로 12월 한달 동안 무료 환경 컨설팅을 실시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CTA벤처팀(사장 김현순, 전 환경에너지부 근무)은 이 기간동안 공장의 폐수 및 배가스, 폐기물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청정생산 기술 소개 및 적용 가능성을 컨설팅해 주었다.

CTA벤처가 보급하고 있는 청정생산기술은 청정원료 사용 기술, 청정생산공정 기술, 재자원화 기술 등 제조업체의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생산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보유기술 중 강판 표면 세척공정에서 질산화물(NOx)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스테인리스강

청정생산기술과 연소가스중의 이산화탄소(CO₂)를 이용해 알칼리성 계통의 폐수를 중화하는 연소배가스를 이용한 폐수중화기술은 이미 국내 철강업체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환경상 수상자 선정

경북도는 2002년도 경북환경상 수상자로 환경보전시책 추진실적이 뛰어난 3개 시·군과 환경보존운동에 앞장선 2개 민간단체 및 도민 12명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 31일 중무식에서 열렸다.

선정된 시·군에는 각 200만원, 단체는 100만원의 시상금과 상패가 주어지며, 일반인에는 상장과 손목시계가 부상으로 수여되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시·군단체 △환경보전부문 포항시 △도시환경부문 구미시 △자연환경부문 영덕군

▲민간단체 △지곡공동주택 통합입주자대표회의(대표 전남숙) △단체 여성회(대표 이선혜)

▲일반인 △허필찬(자동차부분정비조합 포항지회 자문위원) △이문식(구미전기초차 환경관리인) △김춘옥(단체여성회 총무) △하미애(영천 중앙동 부녀회장) △김경아(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 △이연옥(경산자연보호 지도위원) △도석환(푸른군위21 추진위원) △이원구(그린영덕21 사무국장) △배계환

(성주 가천면 자연보호위원장) △김기순(칠곡 우방신천치아파트 부녀회장) △박시옥(맑고푸른예천21추진협의회회장) △구봉철(울진 원자력본부).

경기도, 환경분야에 6천여억원 투입

경기도는 2006년까지 6천496억원을 들여 상수도시설 확장, 수돗물 수질개선,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폐기물 처리시설 확대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도(道)에 따르면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해 화성시에 298억원, 양주군에 130억원 등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이 부진한 시·군에 예산을 집중 투입, 도내 상수도 보급률을 88.7%에서 2006년에는 93.4%까지 대폭 향상시킨다.

또 팔당상수원보호지역 7개 시·군의 38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투입되는 지방비 131억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팔당호 수질의 1급수화를 위해 3천918억원을 들여 하수도 보급률을 68.5%에서 80%로 끌어올린다.

이밖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조기설치를 위해 지방비 사업물량(47%)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 광역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환경지속성지수 위크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환경계소식

12월 4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환경지속성지수(ESI)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ESI는 현재 환경여건 및 미래 환경도전에 대한 국가 대처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환경조건이 양호함을 나타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간 세계경제포럼의 ESI 평가방법 및 향후 전망을 발표한 뒤 국제사회의 ESI 논의동향과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적정지수 개발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ESI 작성근거인 환경부하, 위해성, 사회·제도적 역량, 지구환경관리 기여도 등 분야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국제기구의 각종 지속가능발전지수 개발 및 발표에 따른 적정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2002년 한국의 ESI 지수는 35.1로 인구밀도와 경제성장률이 높아 평가대상 142개국 중 136위를 기록했다.

환경재단 출범

시민·정부·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제3의 환경운동'을 표방하는 재단법인 환경재단이 지난 11월 28일 오후 6시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출범했다.

이세중 변호사가 이사장, 최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상임이사를 맡은 환경재단은 300억원 목표의 기업

체 기부금을 바탕으로 환경관련 컨설팅, 환경친화상품 선정 등의 기획 사업을 통해 기업체에 환경 관련 이익창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중인 환경운동단체 지원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와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시인 김지하씨, 이병규 현대백화점 사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조정원 경희대 총장 등이 재단 이사로 참여했다.

한·중 환경산업 투자포럼 개최

한국환경산업협회는 지난 11월 22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상하이 환경보호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제2회 한·중 환경산업 투자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인사와 협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가한 이번 포럼에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기기 및 제품별 기술이 소개됐다.

이튿날에는 이만의(李萬儀)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산업 협력 정례화 등을 다루는 환경산업 협력회의가 열렸다.

통영하수종말처리장 ISO인증 취득

경남 통영시는 2001년 9월 가동에 들어간 통영하수종말처리장이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14001인증을 취득했다고 지난 11월 19일 밝혔다.

하루 5만4천t의 처리능력을 갖춘

통영하수종말처리장은 국제규격의 기계·설비와 환경경영능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 최근 인증기관인 미국의 SGS社로부터 ISO 14001인증을 취득했다.

영산강환경청, 청소년 환경상 수상자 발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2월 17일 평소 환경보전 활동에 모범을 보인 12명의 청소년 환경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청소년 환경상은 영산강환경청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실천적인 환경사랑운동을 전개하고자 2002년 처음 제정했다.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에는 광주 총장중 1년 설요한(14)군이, 우수상에는 순천 이수초 6년 정대석(13), 고령고 2년 위기웅(17), 신성여중 3년 강소연(16)양 등 3명이, 장려상에는 주암중고 2년 오삼록(17)군 등 8명이 선정됐다.

특히 설군은 동네 주변 튀김집 등의 폐식용유를 유상으로 수거해 무공해 비누를 제조, 동네 주민들과 노인당에 나눠주는가 하면 쓰레기불법투기신고 등 환경보전과 오염 감시 및 예방활동에 솔선 수범한 점이 인정돼 최우수상을 받았다.

영산강환경청은 12월 31일 이들 청소년 환경상 수상자에게 상패 등을 수여했다.

